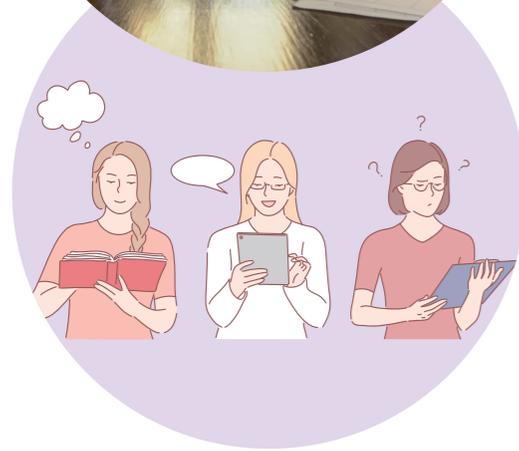


공유 독서

# 엄마들의 수다가 마을을 바꾼다

글. 사진. 이두현(공유 독서 대표)



※ 삼송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삼송동에 터를 잡고 아이들을 키우며 내 친구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아이 친구의 엄마라 해야겠다. 같은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엄마로 사는 일상은 행복하지만 외롭기도 하다. 모임이 많아지고 친구가 늘어나도 남모르게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나는 책을 읽으며 외로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건강한 질문을 던지며 '외로움'을 '고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책으로 소통하며,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나아가 '고독'을 즐기는 일상을 나눠 보자고 마음먹었다. 이 생각이 발전하여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을 공유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공유 독서'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동네 맘카페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알리고 독서 모임 소개와 신청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5명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자 중 선정된 7명이 지난 5월부터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0권 정도의 책을 함께 읽었다.

동네에 책 친구가 생겨 외롭지 않았고, 혼자 읽었다면 절대 읽지 않았을 책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생각을 들으니 사고도 확장되는 것 같다. 엄마가 책 읽는 습관이 생기니 아이도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난 10월에는 우리 마을의 모든 엄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연을 준비했다. <엄마들의 책모임>을 쓴 강원임 저자의 강연을 통해 엄마들의 독서모임이 필요한 이유와 모임을 만드는 방법, 진행하는 방식, 많은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의 경험담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물으며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부터 마을을 위해 공동체 모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포함한 엄마들의 수다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마을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었다. 마을은 가정이 모여 이루어지고 가정의 중심에는 엄마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도 엄마들의 건강한 문화를 위해 고민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 엄마들의 독서 모임 공동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말랑 말랑 동화 모임

# 동화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해요

글. 사진. 김근영(말랑말랑 동화모임 대표)



※ 대화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말랑말랑 동화모임'은 2019년에 대화동에서 시작된 공동체이다. 동화를 좋아하는 어른들이 행복한 책방이라는 장소에서 만나 말랑말랑 동화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화책'을 매개로 세대와 직업, 가치관을 뛰어넘어 함께 공감하고, 웃고, 울고,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모임이다.

코로나 시기도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인 '키우기'에 선정되어 대화동 지역에 동화를 사랑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놀이 문화와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어른들의 동화모임이 진행되는데, 이달의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가의 작품을 읽은 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신시아 아일런트의 '그리운 메이 아줌마', 장경선의 '제암리를 아십니까?', 벤티 바이어스의 '검은여우', 이현의 '로봇 1, 2, 3', 오카다 준의 '비를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 등의 작품으로 모임을 이어왔다. 모임에 작가를 초청하기도 하면서 그 주제에 맞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모임에서 어떤 회원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과 연결된 동시를 읽어주는데 그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동화작가와와의 만남도 진행했다. 지난 9월 5일에는 정은숙 작가의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로 만남을 가졌다.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여서 비록 대면으로 함께하진 못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할 때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걱정하기도 했지만, 모두 기우었던 것 같다. 오히려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했고 그중 절반은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했다. 정은숙 작가와 아이들과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너무나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피로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우리 말랑말랑 동화모임은 지역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열심히 앞장설 예정이다.